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회개와 준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연령별사랑방 교사 명단(교역자, 교사, 부장, 생활지도)
꾸리기사랑방: 장영미, 차태옥
어린이사랑방: 석지인, 장성아, 이승호
푸른꿈사랑방: 이어진, 이돈희, 이재신
늘푸른사랑방: 권재만, 윤호중, 윤경옥
젊은이사랑방(1): 최기찬, 김중필
젊은이사랑방(2): 정재훈, 김중필
- 연령별사랑방 교사회의가 오후 1시 30분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공동생활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윗 놀이가 있습니다.
- 이지성(저경하) 목사님 가정이 이사하였습니다.
양주시 삼승로 38번길 (삼승동, 양주자이2단지) 204동 901호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종훈 · 장미라(생일) 집사 가정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0 호

2023년 3월 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3.1절 안동을 다녀와서

멋쟁이 개강 여행으로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안동은 아래 쪽이라 날씨가 훈훈하고 봄기운이 한층 다가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1절을 중간에 끼고 다녀오는 일정이어서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고, 일정 기간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도 교회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도 3.1 운동은 기독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스승이 가르치던 도산 서당을 증설하여, 스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서당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뒤편에 세운 서원입니다. 성균관이 조선의 국립대학이었다면 도산서원은 일종의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황 선생은 수도와 도시에 있는 향교와 국학에서는 제도에 얽매고 과거시험과 무관할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학문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안동에서도 한적한 도산을 찾아 서당을 세워 순수학문을 익히고 새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 유명한 이가 서애 류성룡 선생입니다. 하회마을은 서애 선생의 종택이 있으며,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집필했던 옥연정사가 있습니다. 징비(懲毖), 지난날을 징계하여 후환을 대비한다는 성찰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애 선생이 집필

한 징비록에는 7년 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원인과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후에 있을 외세의 침략에 대비토록 하였는데, 몹시 안타깝게도 조선 정부는 조정의 실책을 기술한 책이라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했고, 이후에 류성룡 선생이 염려했던 대로 다시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애 류성룡의 뜻을 이어서 역사를 잊지 않고 성찰했다면, 혹시 이후 일제의 침략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류성룡은 전쟁이 일어나기 약 1년여 전에 이순신을 정읍 현감에서 전라 좌수사로 보직 이동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합니다. 이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무려 7계단을 수직상승 한 셈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연일 정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변방에 머물러 있던 무명의 장수를 지금의 중장급 인사로 승진시킨 것입니다. 서애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품을 존경하고 실력에 감탄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절의 마음이 둘 다 똑같았기에 서로 자리는 다르지만, 그 뜻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에 몸 바쳤던, 수많은 무명의 투사들 역시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품은 큰 뜻은 많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149 456 150 / 438

기도 : 이충환 집사

성경 : 요한복음 20장 19~31절

제목 :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1.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What)

<문단구분>

19~23 성령을 주심

24~29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

30~31 요한복음의 목적

2. 의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다. (Why)

1)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셨다. (v.21)

2)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다. (v.28)

3)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v.31)

3. 적용: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주시도록 기도하자. (How)

1)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기도하자.

2)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기도하자.

3)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자.

많은 인연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들, 그런 다음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자라나면서 학교, 직장을 다니고 교회 생활, 여가 활동 등을 하며 새로운 만남의 장을 넓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집니다. 많은 인연과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갑니다.

가정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여가 활동에서의 나. 나는 한 사람인데, 나의 성향은 어떤 장이나에 따라 각기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나를 보는 많은 사람은 각자가 본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어느새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인연이 있었으나 지금 내 곁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인연들만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에만 깊은 인연의 만남으로 이어져가나 봅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가는 중이라서 앞으로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겠지요? 그럼에도 함께 하는 이들은 항상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멀어져 간 인연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경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조사가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됩니다.

오늘(3월 4일) 한나의 결혼식을 통해 만남과 인연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축하와 격려를 통해 나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셨던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헤어짐이라는 이별이 있지만, 나의 주님은 나에게 항상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고 내게 필요한 세세한 간절함까지 아시고 응답해주십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아픔이 없습니다. 항상 든든한 나의 주님이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과 멋진 결혼식을 보게 해주셨음을... 예배공동체 최연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5-16 인도자
2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시 편 103 : 3-5 인도자
84, 8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3 : 1-21 설교자
284 사랑방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21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서병욱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니고데모의 방문. 바리새파이며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
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
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한 그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한 사
람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은 죄 씻음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의식으로는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이 부
는 것과 같이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부는 것
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
다. 물과 성령 모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련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것이 더 본질적인 세
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각각 한 명씩 새 친구가 왔습니다.

입학식날 권재만 목사님은 올해의 공동체 표어인 베드로전서 4장 8~9절을 읽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학부모님들은 꾸러기들이 가슴에 달 예쁜 꽃과 헬륨이 들어간 풍선과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첫 등교가 시작된 금요일 함께 꾸러기학교 교가를 불러 보고 기도를 드리며 아침모임을 하고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들을 확인하고 놀았습니다. 매우 시끌벅적한 하루였습니다. 큰 블럭으로 집을 지어 놓고 강아지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잡기놀이도 했습니다. 다섯살 으리는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곧 다시 놀았고 일곱살 지씨는 친구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온다고 잠시 울었지만 서로 얘기해보니 너무 신나게 노느라 시끄러워서 생긴 오해였을 뿐임을 알고 곧 사과하고 다시 놀았습니다. 오후에는 밖에 나가 트램블린에서 열심히 뛰고 그네를 타며 놀았습니다.

새로 온 세 친구들도 첫날부터 약속도 잘 지키고 잘 웃고 요리선생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밥과 간식도 잘 먹었습니다.

일곱 친구들이 올 한 해 꾸러기에서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올 해가 다 가기 전에 좀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 교사 : 전승희 >

어린이학교

봄이 확 왔어요. 퐁퐁 열었던 땅을 밟으면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옴을 느낍니다. 겨울방학을 끝내고 3월 2일 개학하였고, 오후엔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의 편지를 읽고 찾아가기를 했는데 잘 못 찾은 친구가 많아 웃음이 넘치는 시간 이었습니다. 또, 신학기 교재도 받고, 신입생 맞이 의자 놓기, 축하송도 연습을 하며 입학식 준비를 했습니다.

편입생은 2학년 신예나, 3학년 최리야, 5학년 신새나 최다니 화진지입니다. 쑥스럽지만 자기소개를 멋지게 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도 추고, 다리찢기, 노래부르기, 영어 중국어로 자기소개하기, 태권도 폼새 ~ 모두 멋지게 장기자랑도 했습니다.

2023년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이학교 모든 친구들을 응원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지난 주일, 개학식과 여섯 명의 새로운 멋쟁이를 환영하는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와 장기자랑을 위해 앞에 선 신입생들의 얼굴엔 떨림과 긴장이 가득했고, 재학생들은 박수와 미소로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기대 찬양을 함께 부르고, 부모님들이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1학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경상북도 안동으로 개강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동 곳곳과 영덕까지 누비는 일정과 빠질 수 없는 축구, 멋쟁이학교 여행의 정체성인 공동체 훈련과 피드백까지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여행 중 3.1절을 맞이하여 영화 <영웅>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대한 독립에 대해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멋쟁이 학교 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장성아 >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행

이번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개강 여행 안동과 영덕으로 다녀왔습니다.

선배로서 다녀오는 첫 여행이라 많이 긴장하고 설레하며 다녀왔습니다.

개강 여행은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산서원과 영덕의 푸른 바다. 그리고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 있었던 3.1운동에 관한 다양한 행사와 하회마을까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하면서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우리를 처음으로 맞아주던 도산서원은 오래전 우리와 같지만 다른 학생들이 함께 지내던 기숙사이자 터전이었습니다. 옛날 학교를 보니 느끼는 점이 많았고,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등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었던 공동체 훈련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얽힌 손을 잡고 하나하나 풀어가며 잔뜩 웃었던 공동체 훈련은 우리 멋쟁이들의 관계와 단합심을 알고 다지기에 충분한 활동이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서로를 모두 다 받아들이기엔 부족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멋쟁이들의 모습에서 작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서로의 노력과 행동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이루려 더욱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학교인 멋쟁이학교가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며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정아인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94장, 218장

성경 : 누가복음 18장 18~30

말씀 : 버릴 때 얻는 영생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스 열차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그리스에서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던 젊은이들인데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밝은누리 공동체>
유치과정부터 고등, 대학통합과정까지 있는 공동체 내의 자녀교육과 기관에서 하나님의 참 교육이 실현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강 여행 중에 있는 멋쟁이학교 학생들과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3월부터 시작 될 연령별사랑방 방모임을 위해
토요일에 결혼할 새 가정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완연한 봄 날 같던 날이 반짝 꽃샘추위로 인해 일교차가 커지고, 해가 지면 쌀쌀한 바람이 불어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련의 꽃 봉우리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산수유나무도 봄소식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무 정리는 계속 되고 있고, 위쪽 어린이들 교실 앞에는 야자수 매트 깔아 어린이들이 왕래하기 편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공동체에는 곳곳에 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정리, 정돈 되어서 새롭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인 박광희 목사님, 인근자 사모님의 자녀 박한나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여러분 참석 하셔서 많은 축복을 해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새 가정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